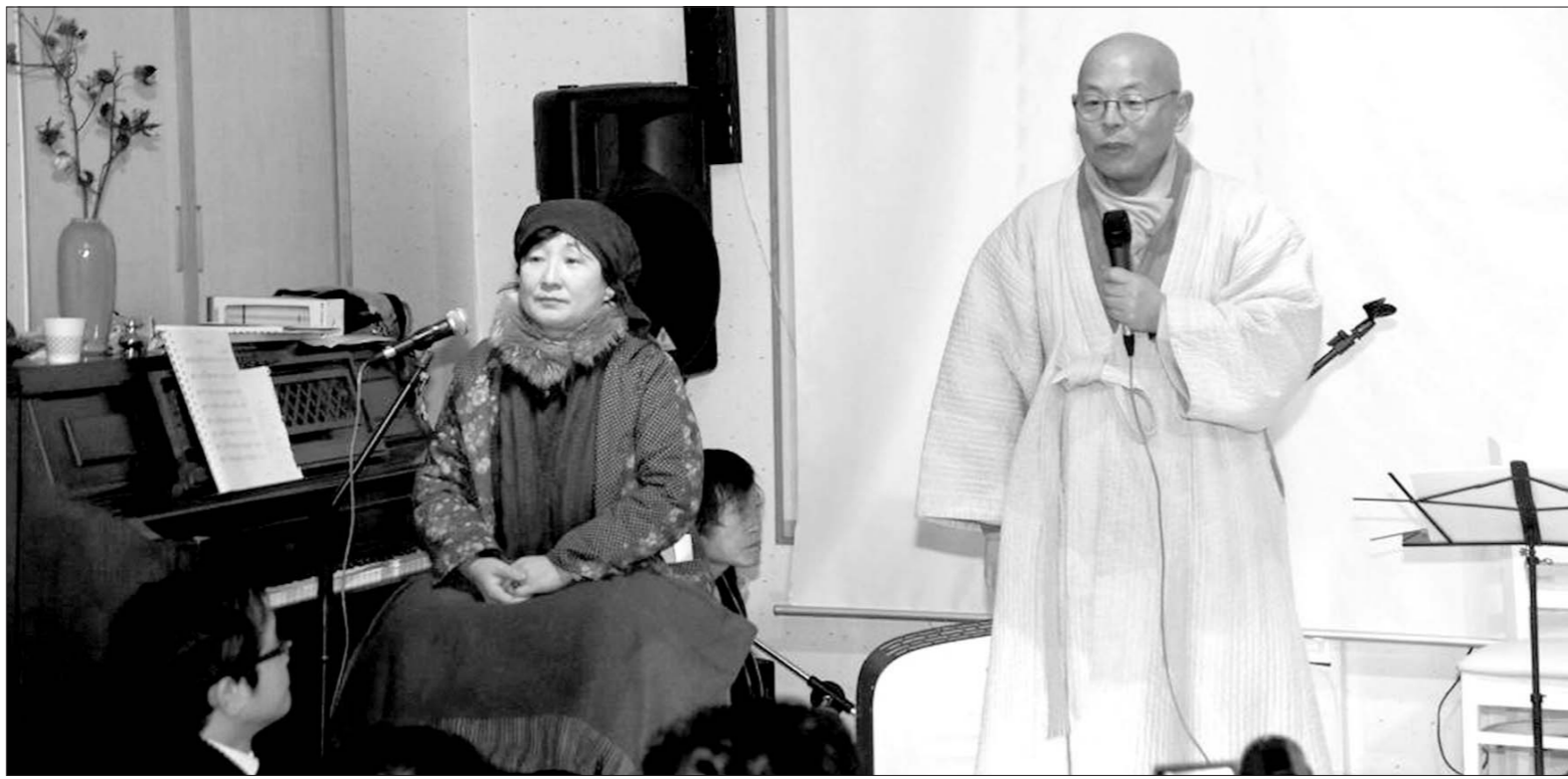


# 5·18시대정신·민주·평화 논한다

제11회 중삼음악회 광주캠프  
16일 오후 김넛과서



5·18민주화운동을 펴며·왜곡하는 '5·18 망언' 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5·18시대 정신과 민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중삼포럼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지역 복합 문화공간인 광주 동구 대인동 김넛과에서 '제11회 중삼음악회 광주캠프 용당포·아우슈비치·금남로 그리고 평화'를 개최한다.



중삼포럼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지역 복합문화공간인 광주 동구 대인동 김넛과에서 '제11회 중삼음악회 광주캠프 용당포·아우슈비치·금남로 그리고 평화'를 개최한다. 사진은 제8회 중삼음악회에 참석한 일지암중삼음악회법인스님의 모습.

중삼포럼은 김중삼 문학사상의 함양과 공유를 위해 지난 2016년 3월 출범한 비영리 법인 등록을 마친 임의단체다.

이들은 현역문인과 일반대중과 연구자가 함께 하는 새로운 형식의 시와 문화공동체로서 21세기 한국 문학이 지향해야 할 다양한 담론과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중삼포럼이 5·18과 평화, 인권을 주제로 광주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광주캠프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용당포, 아우슈비치, 금남로 그리고 평화'를 주제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켰던 평화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를 갖는다.

용당포는 김중삼 시 '민간인'의 주요 배경이고 '아우슈비치'는 김중삼의 아우슈비치 소재 시들의 공간이다. 특히 이번 광주캠프는 현재 오염되고 왜곡되고 있

## 중삼포럼, 5·18과 평화, 인권 주제 김준태 시인 등 금남로 시인들 참여 시 감상·토크 콘서트도

는 5·18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뜻을 되새기기 위해 5·18을 기억하는 시와 음악 감상의 시간과 함께 금남로 시인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함께 벌여 눈길을 끈다.

금남로 시인으로는 광주지역에서 김준태 시인과 함께 김완, 이재연, 고영서 시인이 참여한다. 또 서울에서는 노혜경, 임동환 시인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낸다.

이밖에 소설가 박인, 운동수 작가도 함께 참여한 다. 1부에서는 '광주항쟁 30주년 기념 공연 다류 영

상'이 상영되고 '어머니의 눈물가에 놓이는'이라는 주제로 '용당포, 아우슈비치, 금남로'에서 자행됐던 역사의 악몽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시와 음악 감상의 시간이 펼쳐진다.

김중삼의 시 '민간인', '아우슈비치 라게르' 등 시와 함께 헨리 고레츠키의 '교향곡 3번 슬픔의 노래',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 번호 142',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2부에서는 '시인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금남로 시인들의 토크 콘서트가 함께 열린다.

임동환 중삼포럼 시인회장은 "중삼포럼은 지난 2016년 창립 이래 김중삼 시인이 추구했던 아름다움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고자 있다"며 "특히 이번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11회 중삼음악회는 왜곡되고 있는 광주역사를 다시금 일깨워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국내의 유명 패션디자이너 한자리에 15일 오후 7시 30분 ACC 극장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평창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15일 오후 7시 30분 ACC 극장1에서 열린다.

이번기념행사는 '하나된 열정,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한 패션 문화행사로 전개된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평창개폐막식의 의상감독이었던 김기숙 디자이너의 올림픽 피켓 도우미 의상과 함께 이상봉, 이진숙, 양커 등 국내외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이 평창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1주년 기념행사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 대전, 부산, 제주 등 전국 주요도시와 특별히 도서지역 중 울릉도, 백령도에서 함께 진행되는 행사 중 하나다.

이번 패션 문화행사는 지난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날에 맞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먼저 선보였던 것으로, 서울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옮겨와 광주 시민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질 예정이다. 먼저 열린 서울 패션문화행사에서는 1천여명의 관객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공연 티켓은 전석 3천원으로, Naver 예매 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다. 공연수익금은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https://booking.naver.com)이나 전화(02-304-5755)로 알 수 있다.

유대영기자 ydy2132@srb.co.kr

## 미국 미디어작가와 함께하는 아트워크숍 광주문화재단, 다음달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미국 작가와 시민이 지역의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뉴미디어아트 워크숍이 마련됐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은 국제교류프로그램 '아메리칸아트 인큐베이터'(American Art Incubator)의 일환으로 미국 작가 로렌 매카시(Lauren McCarthy·사진)가 진행하는 워크숍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메리칸아트 인큐베이터(AAI)는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이 주도하고 제로원(ZERO1)이 실행기관으로 참여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이다.

1개월 동안 미국 작가를 타국에 파견, 현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및 뉴미디어 아트 워크숍을 진행한다. 올해는 멕시코,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한국, 스페인, 터키에 1명씩 파견하며 한국에서는 광주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4월 19일 '작가와 만남'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5월 10일, 11일 시민들과 함께하는 페널 리뷰 및 오픈 하우스로 마무리된다.

워크숍 주제는 '스마트 홈(지능형 가정)'이다. 참가자들은 주제 구현을 위해 미디어아트 관련 다양한 재료와 디바이스를 활용, 미래의 자동화 된 가정에 대한 상상을 작품으로 구체화시킨다.

작가와 워크숍 15시간과 팀 별 프로젝트 개발 30시간을 거쳐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유대영기자 ydy2132@srb.co.kr

# 나와 우주가 만나는 '찰나'를 아시나요



'찰나'

## 송유미씨 '블로뉴 숲' 전 다음달 말까지 갤러리 라본

...우중충했던 오늘 하루와 우울한 내일의 짐작에 풀이 죽은 나는 마들렌 한 조각이 부드럽게 녹아들어가고 있는 차를 한 손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과자 부스러기가 섞여있는 한 모금의 차가 입천장에 닿는 순간, 나는 몸 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소스라쳤다...(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

섬세한 감성으로 감각을 탐구해가는 송유미 작가가 '블로뉴 숲'을 주제로 이달 초 시작해 다음달 31일까지 갤러리 라본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송유미 작가는 '감각을 통한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녀가 주목하는 것은 '향기·맛·감촉·소리가 감각 기관에 의해 우연한 순간에 인식 되었을 때, 무의식 깊이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기억을 소환해낼 때'다.

그녀가 닿고자 하는 지점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화자가 '차에 적신 마들렌 빵'을 맛 본 순간 무의식의 기억이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 점이다.

'블로뉴 숲'은 차에 적신 마들렌 빵에 의해 끌어올려진 어린 시절 배경으로 등장하는 장소다. 송유미 작가는 우연한 순간에 끌어올려진 영원불변의 '블로뉴 숲'을 그리고자 했다.

한 평론가는 '맛없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끌어내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으로서 예술의 절반을 차지하며 나머지 절반이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샤를 보들레르의 현대성('현대의 삶은 그리는 화가')과 맞닿아있다고 설명한다.

송유미 작가는 "스쳐가는 순간 속에 영원함이 깃든, 그림을 보는 순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각의 기억이 꿈틀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역사를 예술적으로 기억하는 베를린으로~

'베를린...' 북토크, 21일 독립책방서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백종욱(사진) 큐레이터의 새 책, '베를린, 기억의 예술관'의 출간 기념 북토크가 책과생활에서 열린다.

21일 저녁 7시 동구 독립책방 책과생활에서 전개되는 이번 북토크에서는 역사를 가장 예술적으로 기억하는 도시 베를린의 면면과 공공조형물 등에 관해 저자의 예술적 시각으로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오랜 기간 동안 베를린의 공공미술을 찾아 다니며 작품과 설치 장소의 맥락,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느끼고, 경험한 바를 기록하는 한편, 자신의 공공미술에 대한 견해도 만날 수 있다.

백 큐레이터는 "베를린은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기념 공간"이라 할 만하데, 이 도시의 기념조형물들은 현대적이고 예술적 완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일



반 시민들과 호흡하도록 설계되었다"며 "한국의 기념조형물이 높고 솟은 기념탑, 위압감 있는 조형물, 사실적인 위인 동상처럼 여전히 권위적이고 낡은 형식이 머물러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한다.

이번 기념 북토크는 요즘 곳곳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한창인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상상력을 넓혀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종욱씨는 홍익대 회화학과 출신으로 베를린예술대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지난해 광주비엔날레 큐레이터를 비롯해 한국 미술현장에서 기획자로 활동했다. 현재는 미술생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70-8639-9231) 김옥경기자 okkim@srb.co.kr

## 아트 132호 발행

옛 전남도청 5·18 당시 원형 복원 등 풍성

아트 132호가 나왔다. 옛 전남도청이 1980년 5·18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 복원된다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꿈을 강조하는 이진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무대리의 인터뷰가 함께 실렸다.

이전당장 직무대리는 광주가 문화전당을 매개로 체로 활동하고 지역사회 문화 리더십을 발휘해 세계가 탐내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강조했다.

또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2020년 통합협약과 2023년 국비 지원 마감 등에 대해 광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뤘다.

또 이번호에 새롭게 지역공연예술 현장을 찾아 가는 코너를 마련했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는 22일까지 '2019 마을미디어교육 지원사업-동네방송'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으로 마을미디어 활동을 통해 공동체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마을방송 운영이나 콘텐츠 제작을 희망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민이나 공동체가 대상이다.

올해는 ▲마을미디어 체험형(5차시 내외 교육지원) ▲마을미디어 교육형(15차시 내외 교육지원) ▲마을콘텐츠 제작지원형(콘텐츠 제작을 위한 멘토링, 시설통, 장비 지원) 등으로 운영된다.

광주·전남·북 주민모임이나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활동 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apple9794@kcmr.or.kr)로 제출하면 된다.

유대영기자 ydy2132@srb.co.kr